“논문 게재료 안 받겠습니다”…자현 스님의 이유 있는 시도

한국불교학회 제26대 집행부 사업계획 발표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 추진
신진학자 논문 심사료 환급
‘응용불교학’으로 외연 확대
“존엄사 등 세미나 주제 구상
불교학 진입 장벽 낮추겠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학회는 올해부터 학회지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불교학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한 자현 스님〈사진〉이 7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향후 학회 사업 계획 중 일부다. 이날 자현 스님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학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신진학자들의 논문 게재료 면제 등을 통해 불교학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자현 스님은 올해 사업 계획으로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 △신진학자 심사료 지원 △학회 연회비 하향 △응용불교 영역 확대 △편집위원장 권한 독립 △논문심사 배점 기준 재조정 △재정 투명화 확립 △불교 학술 행사 안내 연동 △무료 논문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논문 게재료 완전 면제를 1번 사업으로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불교계 학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해 소정의 게재료를 받고 있다. 투고된 원고 매수가 학회 규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분량만큼 게재료를 추가로 지불하기도 한다. 일부 학회에서는 일반 투고 논문들에게는 게재료를 받지 않지만, 사사(연구비 지원)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는다.

신진학자들은 꾸준히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회지 논문 게재료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자현 스님은 “신진학자와 불교학 활성화를 위해 한국불교학회는 불교계 최초로 학회지 논문 게재료를 면제하려 한다. 분량이 많은 논문에 초과 게재료도 부과하지 않겠다. 연구비 지원 논문이나 전임 교수의 논문도 게재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을 경우 연간 700~1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학회 내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전임교원 등 형편이 괜찮으신 선배 학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후학들이 혜택을 받아 성장하는 것이 선순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현 스님은 학회에 매년 2000만원의 발전 기금을 후원할 계획이다.

학회의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자현 스님이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불교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생애



처음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신진학자에게 심사비 9만원을 환급하는 것도, 연 10만원의 학회 연회비를 5만원으로 낮추려는 것도, 학회지에 응용불교학 영역을 별도로 배정해 논문을 투고토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현 스님은 “사실 학회들이 형편이 어려워 학회비를 상향한 경우가 많다. 열심히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야 이 회비가 부담되는 돈은 아니지만, 2~3년에 한 번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학회 진입을 낮춰 불교학의 외연을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자현 스님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춘·추계 학술대회, 워크숍의 주제와 발표 방식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추구하는 기조는 소위 ‘알뜰신잡’식 코드에 가깝다. “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 보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의 중간에 있는 영역”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학술행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현 스님은 현재 구상 중인 학술행사 주제로 존엄사, 낙태, 인공지능 윤리 등을 제시했다.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불거진 존엄사나 낙태, 생명 복제 등의 문제들에서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은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결정으로 이뤄지는 불교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면서 “현시대에 불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학회에서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 학술행사에서는 발표문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PPT로 발표해 청중들이 몰입감을 갖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연구 내용은 학회지 논문으로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현 스님은 학회의 재정 투명화를 위해 상근 직원을 채용해 매달 입출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법인 감사 중 1인을 외부 전문가로 둬 감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불교학회 홈페이지에 모든 불교 학술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무료 논문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자현 스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는 벤츠와 포르쉐를 타고 있지만, 후대는 낙타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했다. 부국(富國)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학계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 추진하려는 것은 불교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실험적 시도들”이라면서 “불교학을 공부한 연구자들을 학계로 흡수시키면서 공부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학들이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서 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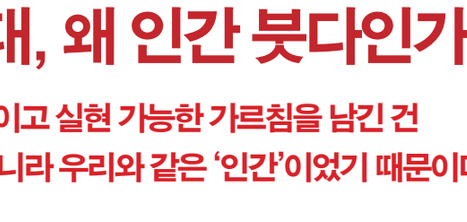
사찰이 직장이라면… 결국엔 ‘사바세계’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
‘사찰 오피스 드라마’ 그려

사찰에 가보면 스님만큼 혹은 스님보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재가 종무원들이다. 이들은 사찰의 행정부터 법회나 행사 준비, 공양, 여러 부대사업들까지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처럼 고즈넉한 사찰을 직장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까. 뭔가 세속의 직장인과는 다른 사유와 힐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찰 좀 다녀봤다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사찰에서의 직장생활이 영화화됐다. 김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사찰 법당 옆 출판사 직원들의 ‘보살 라이프’를 그린 본격 ‘사찰 오피스 드라마’다.

입사 5년 차, 그러나 막내도 5년 차인 ‘혜인’(김연교 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귀여운 재치로 담아냈다. 막내의 길을 걷고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의 한 장면.

있는 ‘혜인’은 나름대로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불교 서적 출판사라고 해서 신도 고객들이 모두 ‘보살’들은 아니다. “내가 낸 기도비로 월급 타 먹는 주제”라고 운운하는 보살들을 보면 진짜 불자가 맞나 싶을 정도다.

주인공이 진상 신도의 무례한 요구에도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속적 이유와 맞닿는다. 바로 ‘돈’ 때문이다. 대출금과 카드 요금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방하착’을 하게 되는 순간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산(宗)’을 관조하며 여행하는 것과 ‘산(宗)’에서 생존해야 하는 삶은 분명 다르다. 그렇기에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그 공간이 ‘오피스’가 되는 순간, ‘성소(聖所)’일지라도 생존의 공간이자 인욕의 공간이 된다.

그렇다고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상황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의 최대 고민인 ‘메뉴 고르기’ ‘퇴근 후 일상’ 등 소소하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영화 곳곳에 담겼다.

결국, 사찰이든 사회든 우리는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살아간다. ‘사바’는 인도말로 ‘감인(堪忍)’으로 번역된다. ‘견디고 참으라’는 의미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버티며 산다.

한편,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영화 제작 전, 이미 동명의 에세이로 팬덤이 형성됐고, 영화 제작 후에는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영화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진 작품이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 상영됐으며, 지난해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꽃 든 조선代 보살상, 튤립의 나라 찾다

국립중앙박물관 목조관음보살상
네덜란드국립博에 2년 간 전시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네덜란드국립박물관은 ‘라익스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렘브란트, 페르메이르, 반 고흐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한 네덜란드 회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전시 공간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곳에 조선시대 관음보살상이 교류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2년 간 네덜란드국립박물관(Stichting Het Rijksmuseum) 아시아관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목조관음보살상’을 특별 전시한다. 이번 특별공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한국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네덜란드국립박물관이 암스테르담으로 본격 초대한 목조관음보살상은 18세기 전반에



네덜란드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목조관음보살상.

조성됐다. 관음상을 조성한 불모(佛母)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표정 등 표현 방식을 통해 조각승 진열(進悅)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승려 장인이 정성을 다해 조각한 ‘꽃을 든 관음보살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떠나 앞으로 2년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인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17세기 조선의 생활상을 유럽에 처음 소개했던 하멜의 나라이기도 한 이곳 네덜란드에서 조선의 불상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 사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지금 이 시대, 왜 인간 붓다인가?
붓다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가르침을 남긴 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경전 속 붓다의 삶은 신비로운
만능의 존재가 아닌, 우리처럼
괴로움과 고군분투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붓다의 인간적인 면모는
현대인들이 삶의 길을 찾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인간 붓다’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와 설화를 걷어낸
율장 속 붓다의 참모습
인간 붓다
이중표 역해
248쪽
2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처럼
일상을 놀이하듯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술이 된다!

따분한 일상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는 ‘놀이의 힘’

추천의 말
“실제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 봐야 할 책.”
- 로버트 M. 피어시그(《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저자)

독자 리뷰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넓게 보면 이 책은 삶에 관한 이야기다.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지음
권혜림 옮김
280쪽
18,000원